

### 3-5. 16세기 남극은 현재의 3배 크기였다!

연결되는 글이오니 1번부터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7,18세기 요동반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남극대륙의 변화를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남극 대륙을 찾아보면



남극대륙 [Antarctica, 南極大陸] 브리태니커

📍 남극이라고도 한다. 남극점 주변을 둘러싸고 분포한 지구상의 최남단 대륙.

중간생략

남아메리카 쪽으로 돌출한 남극반도와 그 양쪽에 자리한 **2개의 만**(로스 해 와 웨들 해)을 제외하면, 대체로 타원 모양을 이룬다. 로스 해의 동해안과 웨들 해의 서해안을 따라 트랜스탁틱 산맥 이 남극대륙을 가로지르며 뻗어 있다. 이 산맥은 남극대륙을 불균등한 크기의 두 지역으로 나누는데, 보다 넓은 면적의 동쪽 부분을 동남극이라고 부르며 서쪽 부분을 서남극이라고 부른다(→ 색인 : 트랜스탁틱 산맥). 이러한 명칭은 동남극과 서남극 대부분의 지역 경도가 각각 동경과 서경에 속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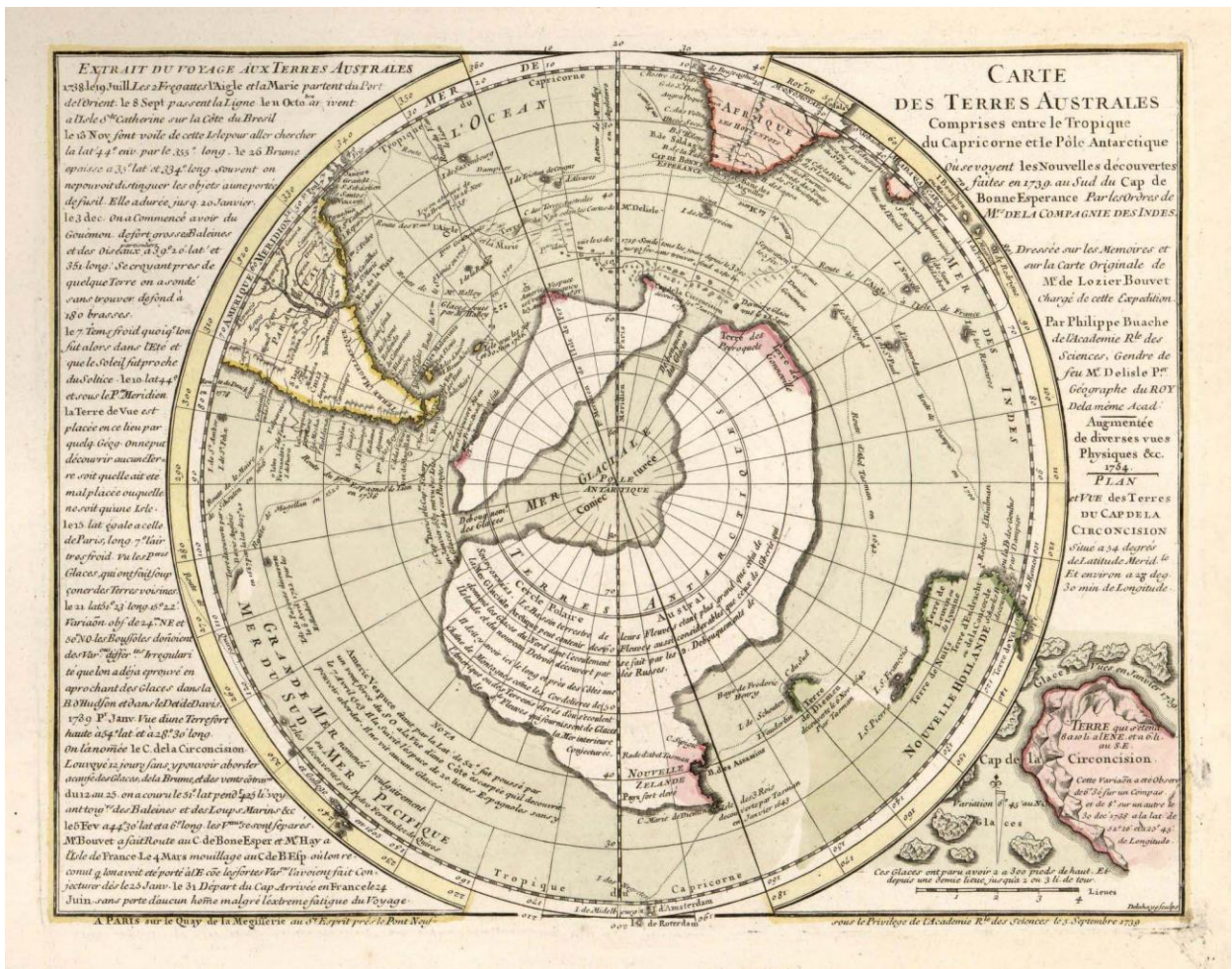
- (1) 동남극은 대륙빙상으로 덮인 고원이며, 서남극은 남극반도와 그 주변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얼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중간생략...

남극대륙 주변의 바다에는 편서풍이 불고 있는데 이의 영향으로 해류는 한류인 서풍피류가 흐른다. (2)1820년 물범을 찾아 남극해역에 온 항해자들은 이 해류를 타고 남극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다.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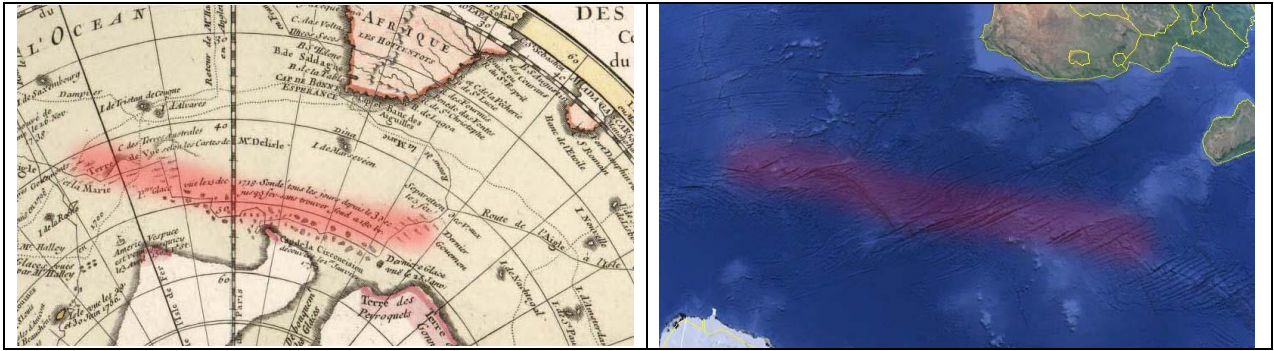
우선 위 글에서 (2)번의 1820년 남극대륙 발견은 수많은 고 지도들로 볼 때 남극을 주인 없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계사를 조작한 것 즉 사기입니다.

지금부터 남극을 그린 지도들을 보겠습니다. 1820년보다 63년전인 1757년 지도를 보면 서남극에 빙봉 자리들까지 그렸습니다 (1)서남극과 동남극 사이를 바다로 표시한 것은 사이가 침수된 지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757 Cartes et tables de la géographie physique ou naturelle

지도를 보면 남극 주위로 해저의 산맥들까지 그린 것으로 보아 남극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표시한 지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극은 고대부터 사람이 살수 없는 극지라는 생각들은 조작정보들에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남극은 지금처럼 극지도 지금처럼 작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의 남극은 17.8 세기의  
 이동반도의 침식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에 침식되어 사라졌 것으로 보입니다...

전 남극의 변화가 너무나 크기에 이것을 고지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곡될수 있기에 16 세기의 고 지도들의 정보를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의 남극을 그린지도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전의 지도들은 제외하고 16 세기  
 고 지도들에 있는 남극대륙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왔었는가를 고  
 지도들로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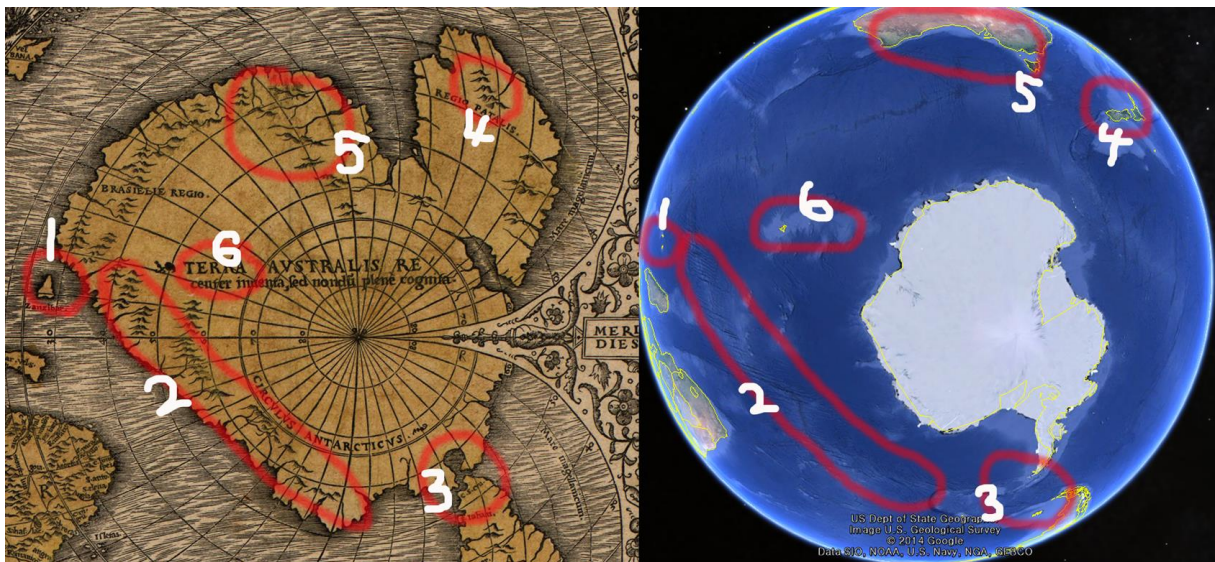
1531 년 지도를 보면 남극은 우측에 커다랄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기에 현재보다 3 배가까이  
 되어 보이는 거대한 대륙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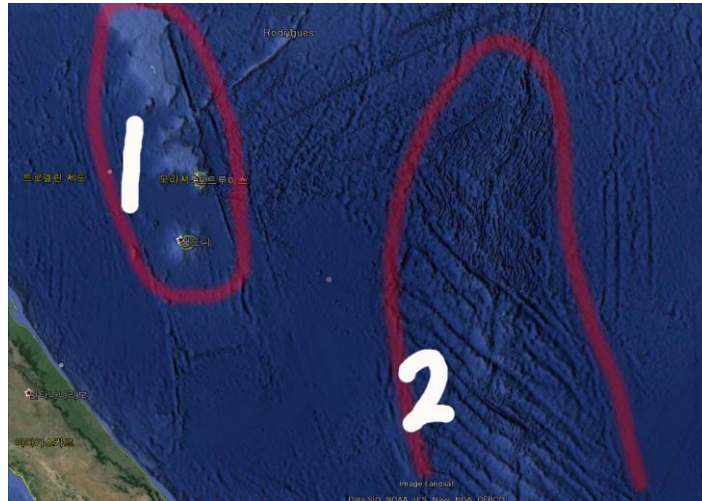
1531 Orontius Fineus

그럼 1531년 지도와 현재의 남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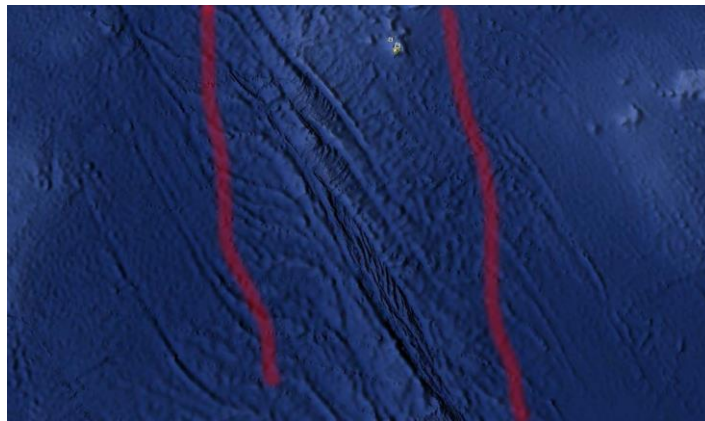


지도를 지역별로 짚어 보겠습니다. 지도대로라면 1.2번 지역은 분명 섬이나 해저의 산들이 있을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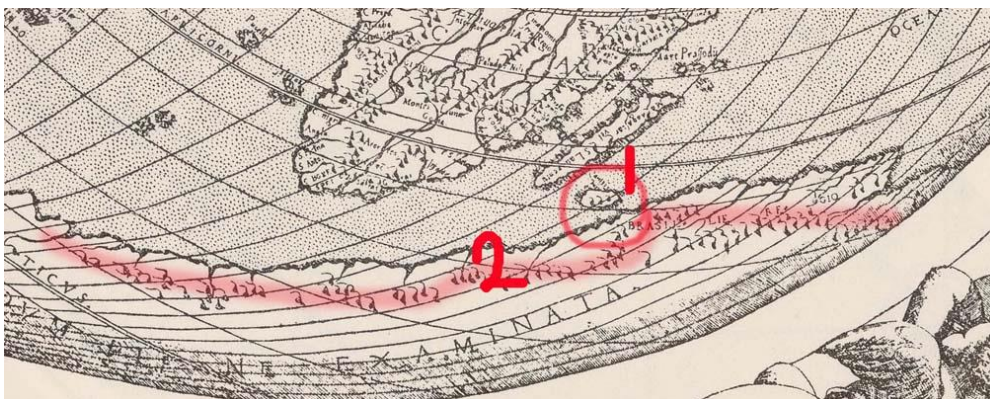
구글로 보면 1번지역은 섬들이 있고 주위에 넓은 지역이 수심이 낮은 것으로 보아 해수면 상승 전에는 커다란 섬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지역에는 해저에 거대한 산맥이 보입니다. 산맥들은 남극 끝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수심이 100M 만 낮아져도 바로 거대한 산맥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2번지역은 아프리카와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1566 Finaeus, Orontius 를 보면 1번지역 좌측의 마다가스카르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극은 아프리카와 800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던 것입니다.



현재도 원안의 지역에 펭귄들이 서식하는 것은 과거에 매우 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



그리고 남극대륙에는 BRA SILLIE REGIO 라는 지명이 커다랗게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래 전도 아닙니다 500년전 남극대륙 아프리카 쪽 지역은 BRA SILLIE 로 남미의 BRA SILLA 와도 매우 유사한 지명입니다. 분명 BRA SILLIE 와 BRA SILLA 는 SILLA(신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남극대륙은 결코 얼어붙은 불모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남극에 대한 정보가 통제되는 것은 이러한 비밀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3번지역을 보면



남미와 남극은 매우 가까우며 보기에 오랜 옛날에는 하나로 연결돼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구글어스로 1번 2번라인을 보면 해수면 상승과 빠른 조류로 인해 땅이 침식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감안하여 남미의 수심이 낮은 지역을 육지로 칠하고 1531년 지도를 참고해서 남극에 과거의 지형을 그려보면 이러한 형상이 나오겠습니다.



1531 Orontius Fineus



고 지도들을 보면 지명들이 빼곡한 도시들이 발달한 지역이고 과거엔 남극대륙이 극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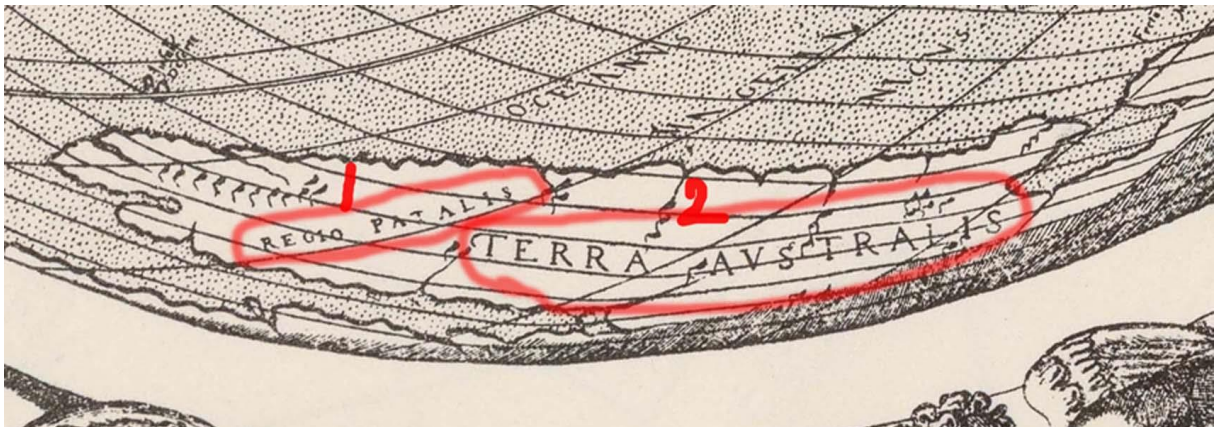
1566 Finaeus, Orontius



1565Venezia(지명이 조작된 지도)

지명들이 명확하게 적혀있으며 Sierra(신라)라는 지명이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 번 5 번지역을 보면



1566 Finaeus, Orontius

1 번 REGIO PATARIS, 2 번 TERRA AUSTRALIS( 라틴어: 남쪽의 땅)라는 지명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고 지도대로라면 호주(AUSTRALIA)는 남극대륙과 붙어 있다가 분리된 것입니다.** 분리된 시기는 요동반도가 사라지기 시작한 17세기 이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해수면 상승후의 대 지각 변동 사례들 중 남극과 호주의 분리가 가장 거대한 지각변동이겠습니다. 세계사를 조작하면서 남극의 역사는 지워졌고 호주만이 AUSTRALIA로 남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고 지도들에 남극은 AUSTRALIS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극의 옛이름인줄만 알지 이런 대륙의 분리는 짐작조차 못할 것입니다.





1531 Orontius Fineus 에는 명확하게 남극대륙은 AUSTRALIS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호주가 남극에서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지도를 보겠습니다.

A 지역을 보면 호주가 남극과 하나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뚫린 표시는 불안정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1757 년대에 남극대륙과 호주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B 지역을 보면 뉴질랜드가 남극에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지도는 너무나 소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1757 년 까지도 뉴질랜드는 남극과 붙어 있었다!



1757 Cartes et tables de la géographie physique ou naturelle

세계사에서 남극대륙은 1820 년까지 미지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 지도들을 찾아보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세기중반까지의 고지도들은 조작지도들도 남극을 그렸고 이후 대부분의 지도들은 남극대륙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지워버린 겁니다.

추측하건대 남극을 지워버린 지도들은 더 나중에 조작한 지도들일 것입니다. 저는 고지도조작은 고대부터 현대로 진행되었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세기 중반 이후의 대부분의 조작지도들은 남극을 지웠다!



1570 Theatrum orbis terra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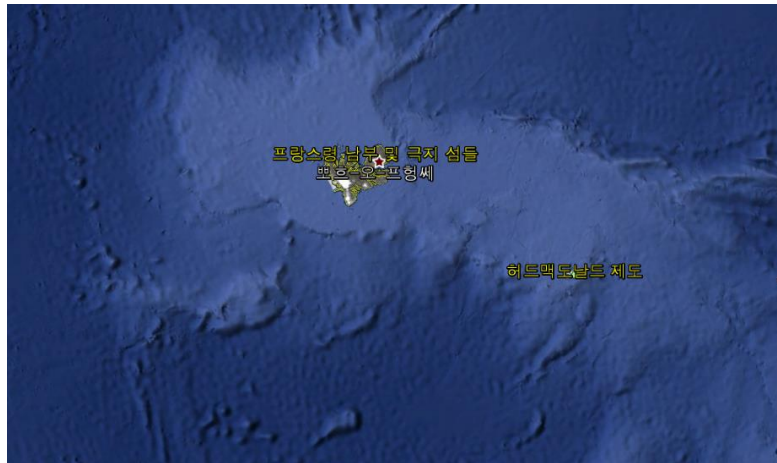


1662 Amsterdam

6번지역을 보면



현재도 수심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해저에 산도 골도 보이지 않는데 섬들이 커다랄게 있습니다. 수심이 50M 만 낮아져도 한반도 2 배 이상의 땅이 드러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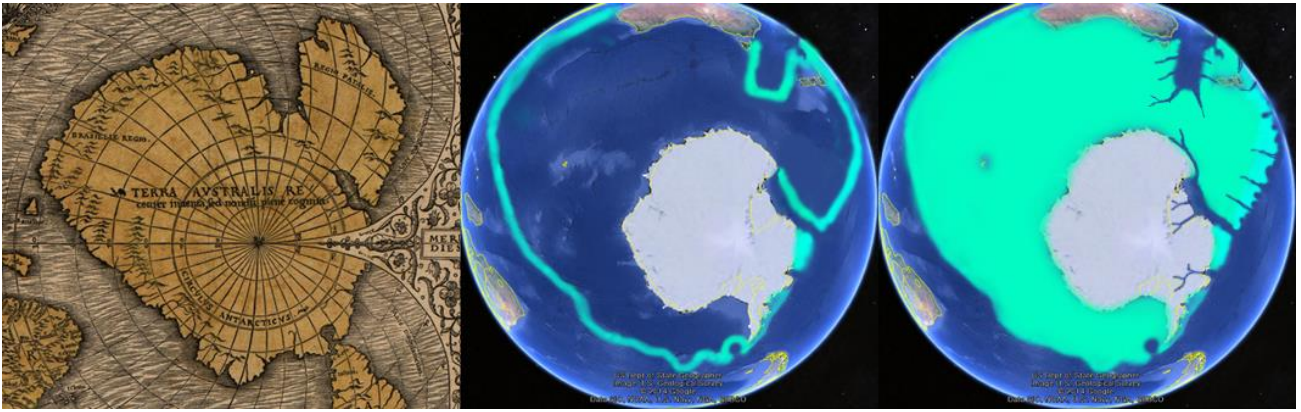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고 지도들이 맞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수심이 100M 쯤 낮아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닷물이 흐르면 땅은 침식됩니다. 물은 흙을 물속으로 깎아 내리고 몇 백 년이면 거대한 육지가 사라지고 다시 생기기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남극을 볼 때 이것을 잊지 않고 보셔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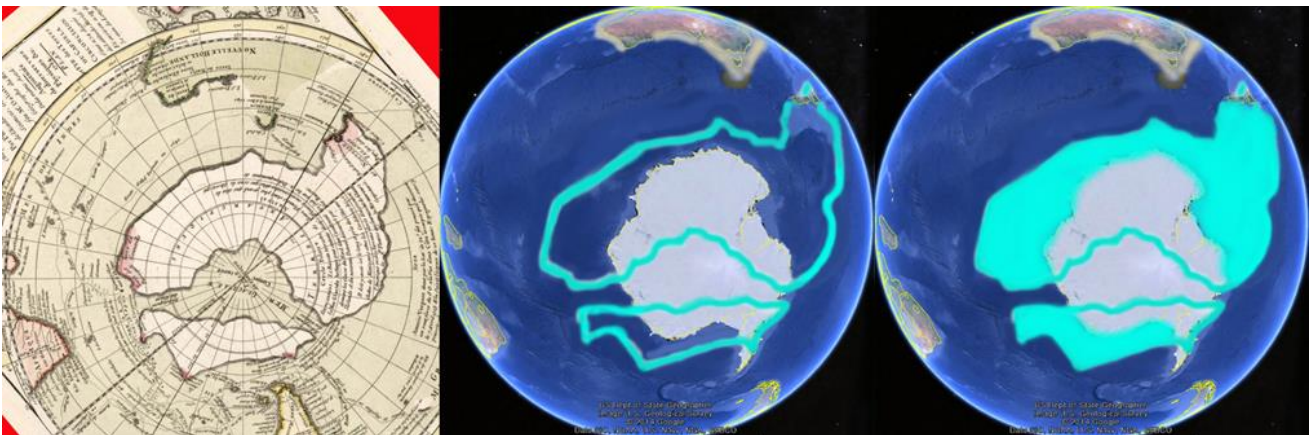
이제 1531 년 1757 년 지도를 현지형에 그려보겠습니다.

<p>1531 Orontius Fineus</p>	<p>1757 Cartes et tables de la géographie physique ou naturelle</p>	<p>현재의 모습.</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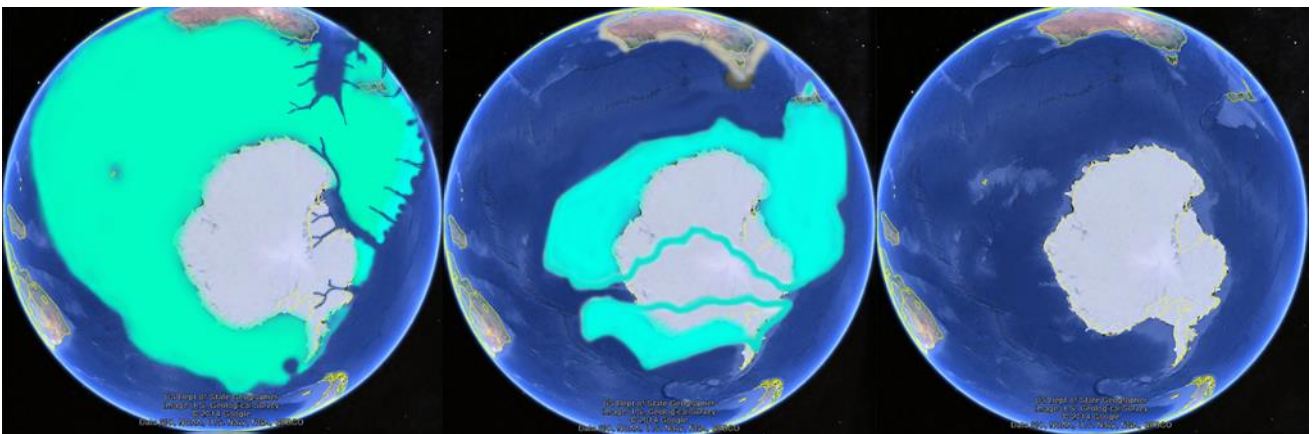
1531 년 지도를 보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남극대륙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1757년 지도를 보면 호주는 남극과 분리 되지만 뉴질랜드는 남극대륙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1780년 요동반도의 완전침식 후 분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현지형에서의 변화를 순차적으로 보면



저는 남극을 보면서 이러한 진실을 감추어 놓았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우리 인류가 아는 남극대륙은 조작과 소설들이었습니다.

남극대륙이 왜? 이러한 변화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고 지도조작과 세계사 조작을 한 것인지 본 블로그의 글들을 읽어 보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세계사조작은 역사만이 아닌 영토에 대한 문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남극은 분명 주인 있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전 우리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극대륙은 16세기까지도 지금의 세배이상의 크기였으며 17,18세기의 요동반도의 침식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남극대륙에서 분리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상의 고 지도들을 근거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시고 글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보시면 많은 분들께 전달을 부탁 드립니다.

2014. 8. 22. ANIAN